

전남 동부권

광양-하동 재첩잡이 어민들 분쟁 딛고 상생의 손 잡았다

공생발전협, 채취 경계구역 획정 등 9대 현안 합의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재첩잡이 어민들이 상생의 손을 잡았다. 광양-하동 공생발전협의회는 최근 광양시청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차 회의 때 논의한 공동현안 진단과 세부 추진사항 등 9대 공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섬진강 살리기 ▲재첩 채취 경계구역 획정 ▲옛 남해 고속도로 섬진강 교량 재개통 ▲매실 산업 육성 공동 협력 ▲경전선 폐선철도 공동활용 방안 ▲섬진강 포구 80리 돌래길 조성 ▲관광산업 상생발전 체계 구축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 ▲섬진강 양안 경관 유지 위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통보제 등이 논의됐다. 양 시·군 업계 대표와 관계 공무원들은 수차례 협의한 결과 1993년 공동 측량한 기존 경계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현장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이날 중문서로 작성해 보관하기로 했다.

특히 양 시·군은 섬진강 살리기 일환으로 섬진 철교와 고전된 신방촌 아래 등 섬진강 하류 2곳에 염분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섬진강 담수 유량 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실태를 파악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7월 초 열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섬진강 수계물 방류량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재건의문을 채택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보내기로 했다.

광양시 최병삼 수산담당관은 “재첩 채취량이 감소해 어민들의 불만이 많아 양 시·군이 행정 차원에서 해결책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환적으로 정부 관계기관에 유역관리 시스템 보완과 섬진강 하천 유지수 대책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는 광양 어민

회와 2010년 섬진강 생태환경 및 염해피해에 대한 용역 추진을 합의한 뒤 조사를 마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섬진강 환경실태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주암댐 물 광주전 공급 철폐 ▲주암댐과 섬진강댐의 하천유지수 대책 확대(갈수기 기준 하루 19만㎡→하루 80만㎡ 이상) ▲섬진강 하류지역 염해 등 피해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섬진강 유지유량 기준점(다압취수장 하류) 변경 등을 정부와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이것이 바로 광양 청매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 경제사업부 직원들이 최근 광양시 옥곡면 원적리 매실농장에서 청매실 수확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연합사업을 통해 매실 800t(30억원)을 농협유통 및 도매사업단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해창만 간척지 우리밀·콩 ‘2모작’ 고소득

▲재첩=모래가 많은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 백합목 재첩과의 민물조개. 현재 유통되는 국산 재첩의 대부분이 섬진강에서 채취된 것이다. 간 해독 작용을 촉진하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해창국으로 가장 많이 먹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고흥군 포두면 농업인이 해창만 간척지에서 우리밀과 콩을 2모작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서동철(37·포두면)씨는 우리밀과 콩 2모작으로 작부체계로 바꾼 이후 일반 벼 재배 농가보다 소득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일반농가 벼 재배의 경우 소득이 ha당 500만~550만원 정도인 반면

우리밀과 콩 2모작의 경우 밀 360만 원, 콩 500만원, 부산물(밀짚) 100만 원, 타 작물 직불금 300만원 등 1200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다. 특히 간척지에는 벼를 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벼 대신 콩으로 대체하고 겨울철 노는 땅에 우리 밀을 재배함으로써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부산물인 밀짚은 조사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한우협회를

통해 계약 판매할 수 있다. 고흥군은 ‘비전 5000 프로젝트’ 일환으로 겨울철 유흥농지 생산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 가을에도 벼 식부 계획면적 1억4316ha 전 면적을 대상으로 유흥농지 생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단지로 지정된 농지는 필지별로 관리해 직접 재배가 어려우면 위탁재배를 하더라도 단 한 필지의 노

는 땅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중 군수는 “지난해 벼 2모작으로 통계 작물을 9369ha 심어 전년보다 1953헥타가 늘어났다”면서 “올해에는 단 한필지의 노는 땅도 없도록 대규모 재배농가들이 솔선수범해 유흥농지 생산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고흥군 ‘비전5000 프로젝트’ 유흥농지 생산화사업 효과

K-water 주암댐관리단 ‘사랑나눔 의료봉사’



K-water 주암댐관리단(단장 김관중)은 (사)열린 의사회(이사장 고병석)와 함께 지난 10일 주암댐 호나눔복지센터에서 ‘사랑나눔 무료 의료봉사’를 펼쳤다. 의료여건이 열악한 댐 주변지역 400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는 내과와 외과·치과·비뇨기과·통증의학과·한방진료의 6개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의료진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못 찾는 10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

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지역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치료 대기자를 위해 무료급식과 다과, 콘서트 등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관중 주암댐 관리단장은 “매년 열린 의사회와 공동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기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 홍콩 습지공원과 교류

순천시가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와 홍콩 습지공원간 우호협력과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조충훈 시장은 최근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홍콩 마이포 습지와 홍콩 습지공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11월 개관을 앞두고 홍콩 습지공원의 선진적인 운영 시스템과 프로그램, 습지관리 등 현장을 답사하고, 양 센터간의 우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홍콩 습지공원은 순천만 자연생태 습지와 같이 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마이포 습지를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과 보전을 위한 교육과 생태체험, 생태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홍콩 정부가 지난 2000년 밀레니엄 사업으로 완성했다. 홍콩과 순천만은 습지와 철새를 매개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왔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포스코, 광양 태인2교 내달 착공

길이 215m 왕복 4차로 조만간 실시계획 승인 후 오는 7월중 착공해 2015년 교량 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태인2교 가설이 태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 교량의 조기가설을 위해 포스코와 3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당초 2017년 착공 예정이던 계획을 5년여 앞당겼다. 광양시 황선범 산단개발 추진단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를 앞당긴 것은 기업·지역·관의 화합과 상생의 좋은 사례”라며 “태인 2교가 가설되면 태인 지역은 전역 포스코에서 부담한다. 지난 2010년 12월 착수한 실시설계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여수 지방해양항만청과 최종 협의 중으로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순천시 위원회 구성 착수 순천시는 한국 정선문화의 산실인 조계산 송광사와 선암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후 세계유산 등재의 선행과제인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잠정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잠정목록 등재와 함께 조계산의 생태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 조계산 불교 문화의 사상 및 문화유산적 가치 등에 대한 학술조사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조계산과 송광사·선암사의 보존 관리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불교 전체를 하나로 묶어 한국의 사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논의는 지난 2월 사찰조경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5월 문화재청 주관으로 열린 세계유산 잠정목록 우선 추진 대상 발굴 세미나에서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필요한 유산으로 조계산 사찰군이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순천시는 조계산 송광사·선암사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이외에도 낙안읍성 문화유산과 순천만(서남해안 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